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오늘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 : 17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진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의 의미는 “믿음으로 이해되는 진리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또 “기독교의 진리는 역사성을 가진 진리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I. 기독교의 진리는 믿음의 진리이다

저는 대학 시절 철학과 교수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기독교 진리는 보편 타당성이 없다. 진리로 인정되려면 이성에 의해 모든 사람이 보편타당하게 진리라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기독교의 진리는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제한된 진리이다.”

저는 그 때 불신자였기 때문에 그말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성에 의해 증명된 것만이 보편타당성이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명제적 진리는 믿음에서 부터 시작합니다. 가장 기본적 명제적 진리는 이성에 의한 증명에서 시작하지 않고 믿음에서 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어렸을 때 수학시간에 점에 대해 공부를 할 때, 점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기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정의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가지 점을 봅니다. 큰점, 작은 점, 지름이 10Cm 인 점, 5Cm 인 점, 1/2Cm 인 점, 등. 어떤 점을 반을 짜르면 그것도 점으로 남습니다. 또 자르면 그것도 점으로 남습니다. 끝없이 끝없이 나누어가다 보면 모두가 점이지만, 점은 크기는 없고 흔적만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것들 중에서 어느것이 진짜 점입니까?

모두가 다 진짜 점입니다.”

그렇지만 크기는 없고 흔적만 있는 점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끝까지 찢아 본 사람이 있습니까?

크기는 없고 흔적만 있는 점은 논리적 추론의 결과이지 경험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크기는 없고 흔적만 있는 것이 점이라는 정의를 수학적으로 그냥 믿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크기는 없고 흔적만 있는 것이 점이라는 명제적 정의는, 이성에 의한 증명에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 의해 인정됩니다.

또 우리는 관념론의 시작이 된 데카르트의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말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확실한 지식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의심으로 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하면서 마지막 까지 들어가보니 아무 것도 확실한 것은 없고, 생각하고 있는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아무 것도 확실한 지식은 없지만, 생각하고 있는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확실히 말했습니다.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Kogito, ergo sum” *I think, therefore I am; or I am thinking, therefore I exist*), 데카르트의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는 관념론 철학의 기본 명제입니다. 이 명제가 옳다는 가정 위에서 관념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를 깨꾸로 하여 “나는 존재한다, 고로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이 틀렸다고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싸움과 같습니다.

“존재한다” 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에서 시작을 하는 철학이 있습니다. 바로 실존 철학입니다.

실존 철학적 입장에서 철학을 한 샤르트르는, 세계 1,2 차 대전 후 세계의 지성은 극도의 허무에 빠져 들어 갔을 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택할 때,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고 말하면서, 자살을 택하지 말라고 하며, 현실에의 적극적 참여를 주장했습니다. 바로 현재 “존재한다” 는 그 사실 하나만 가져도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달걀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 따질 필요가 없이, 실존이 먼저인지, 본질이 먼저인지 따질 필요가 없이, 학자들은, 각자가 옳다고 믿는 명제적 진리에 대한 믿음의 바탕 위에서 철학의 체계를 세워나간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철학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보편타당해야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도, 명제적 진리에 들어 가면 이성에 의한 증명이 아닌, 믿음의 바탕에서 시작을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보편타당성이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도, 명제적 정의에 들어 가면 이성에 의한 증거가 아닌, 믿음이 기초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이것은 믿음에 의해 받아 들여지는 명제적 진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이 믿음의 기초 위에 기독교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기독교 진리가 명제적 진리에 의한 믿음의 기초 위에 체계화되었기 때문에, 보편 타당성이 없는 진리라고 반발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1 : 20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평계치 못할찌니라

성경은 이런 반발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2 : 13 홀연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누가복음 2 : 14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구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당시 천사가 목동들에게 전한 메세지입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모든 사람에게 평화의 소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기독교의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타당한 진리가 아니라,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만, 믿는자들에게만 해당하는 진리라는 것을 미리 선언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않아서, 보편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하나님이 미리 막아버리시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에 들어 와 보고 싶으면 믿음으로 부터 시작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기독교를 알 수 없다. 이렇게 미리 제한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가지를 더 찾아 보면,

마태복음 1:20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태복음 1:21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모든 백성을 구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코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다!

그러기 때문에 기독교의 진리가 진리인가 아닌가 알기 원하는자는, 먼저 기독교의 진리 안에 믿음으로 들어 와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진위를 말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이렇다 저렇다고 떠드는 것은 서울 구경을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서울 풍경을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주장은 아무 가치가 없는 쓰레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요즘 서울 구경을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서울에 대해 말하는 것처럼, 기독교를 믿지도 않는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인터넷 중앙 일보에서 김용욱 교수의 칼럼을 읽고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주장한 것을 보면,

“우리는 어떠한 근거 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텍스트를 ‘도마복음서’라고 부르는가? 도마복음서의 경우는, 그 텍스트의 마지막에 책이름이 명료하게 부기되어 있다: “퉁양겔리온 프카타 토마스”(Peuaggelion Pkata Thomas: The Gospel According to Thomas). 이 텍스트 자체가 살아있는 예수의 말을 디두모 유다 도마(Didymos Judas Thomas)가 기록한 것이라는 서론으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복음서는 최소한 형식상으로는 어떠한 상황에서 누가 기록한 것인지를 정확히 밝혀 놓고 있는것이다.” 이 사람은 복음서마다 이런 기록이 있는 것을 모르는 모양입니다. 도마 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예수님의 쌍둥이 유다인데,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도마 복음을 기록했다는 터무니 없는 가설입니다.

다른 곳을 보면,

“도마복음서를 집필한 도마는 ‘예수의 쌍둥이’라는 것이다. --예수에게 7 남매 이상의 가족이 있었다는 것은 마가(6:3)가 밝혀놓고 있는 사실이고 그 이상의 정확한 내용은 알 수가 없다. 모든 것은 어차피 추론에 속하기 때문이다. 시리아 전통은 예수에게 쌍둥이 형제가 있었다는 것을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인다. -- 중요한 것은 쌍둥이라는 심볼리즘(symbolism)이다. --쌍둥이라는 심볼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예수의 분신적 존재를 예수 말씀의 기록자로서 설정하고자 한다는것이다.”

김교수의 이런 주장은, 도마가 예수님의 쌍동이라고 말함으로 도마 복음의 권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고, 그가 쌍동이 형제를 가진 인간이라 주장함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코자 함입니다.

도마 복음이 사도들의 이름을 도용한 위서라는 것은, 4세기 때 교회사가인 유세비우스가 밝히 입증해 놓은 것이라는 것을 이미 '7' I am의 일곱째 주 강의에서 설명드렸으므로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김용욱 교수는 신약성경을 한번도 다 읽지 않았습니다. 그 근거는, 김교수가 예수의 쌍동이라고 주장하는 유다가 전한 복음서가 요한 3서의 뒤에, 공동 서신의 맨 뒤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다가 자신을 소개하기를,

유다서 1 : 1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이 구절이 의미하는 역사적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족보상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공생애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문에 먹칠을 하는 미친 사람 취급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복음서에는, 마가복음 3 : 21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예수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을 하여 그의 선교 활동을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 된 후, 그의 온 가족이 그를 믿고 복음 사역의 일군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예수살렘 교회의 기둥이며,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이며, 다음의 사역자가 유다서를 쓴 유다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가 자신을 예수의 님의 쌍동이라고 말하지 않고 종이라 말하고,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자기의 형제라고 소개합니다.

유다서 1 : 1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김용욱 교수의 말이 사실이라면, 유다는 도마 복음에서는 자신이 예수님의 쌍동이라고 하고, 유다서에서는 종이라고 한 것이 됩니다. 그것도 같은 시대에 말입니다.

또 김용욱 교수가 인정한 대로 도마 복음은 영지 주의적 작품입니다. 그런데 유다서는 반영지 주의적 작품입니다. 만약 김용욱 교수의 말이 사실이라면, 유다는 한쪽으로는 도마 복음을 써서 영지주의를 찬양하고, 다른 한 쪽에서는 반영지주의적 서신인 유다서를 쓴 것이 됩니다.

이것은 말도 안된다는 것을 세살먹은 어린 아이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김용욱 교수가 예수님의 쌍동이라고 주장하는 디두모 도마는 누구의 쌍동이입니까?

디두모와 도마, Thomas 는 모두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12 제자들의 이름을 나열하는 곳을 보면,

마태복음 10 : 2 열 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마태복음 10 : 3 빌립과 바돌로매, 도마와 세리 마태,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대오,

마태복음 10 : 4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² These are the names of the twelve apostles: first, Simon (who is called Peter) and his brother Andrew;
James son of Zebedee, and his brother John;

³ Philip and Bartholomew; Thomas and Matthew the tax collector; James son of Alphaeus, and Thaddaeus;

⁴ Simon the Zealot and Judas Iscariot, who betrayed him. Matthew 10:2-4 (NIV)

마태 복음은 같은 가족에게서 온 사람들은 묶어서 한번에 열거합니다.

그 예를 볼 것 같으면,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매, 같은 가족에게서 온 사람들은 묶어서 한번에 열거합니다.

이것은 누가 복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6 : 14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 및 그 형제 안드레와
및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매와

누가복음 6 : 15 마태와 도마와 및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누가복음 6 : 16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판 자 될 가롯 유다라

, 베드로와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매, 이와같이 같은 가족에게서 온 사람들은 묶어서 한번에 열거합니다.

그런데 도마를 보면 언제나 마태와 도마가 한데 묶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가 나옵니다.

언제나 도마와 세리 마태가 언제나 한 데 묶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 뒤엔 언제나 야고보가 알패오의 아들이란 말이 따라 나옵니다. 이것은 마가 복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3 : 17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마가복음 3 : 18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매와 마태와 도마와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대오¹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17 James son of Zebedee and his brother John (to them he gave the name Boanerges, which means Sons of Thunder);

18 Andrew, Philip, Bartholomew, Matthew, Thomas, James son of Alphaeus, Thaddaeus, Simon the Zealot

19 and Judas Iscariot, who betrayed him.

마태와 도마와 및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도마와 세리 마태, 그리고 마태뒤엔 언제나 야고보가 따라 나옵니다. 야고보는 알패오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마태 또한 알패오의 아들로서 야고보와 형제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마가복음 2 : 14 또 지나가시다가 알패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좃으라 하시니 일어나 좃으니라

이 구절에서 세관에 앉아 있던 알패오의 아들 레위는 세리 마태입니다. 마태는 야고보와 같이 알패오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 도마와 마태, 야고보는 알패오의 아들이며 형제들 일 것이라고 말합니다².

¹. Thaddaeus

Breast, the name of one of the apostles ([Mark 3:18](#)), called "Lebbaeus" in [Mat 10:3](#), and in [Luke 6:16](#), "Judas the brother of James;" while John ([John 14:22](#)), probably referring to the same person, speaks of "Judas, not Iscariot." These different names all designate the same person, viz., Jude or Judas, the author of the epistle.

"Judas the brother of James;" 는 Judas the son of James;"의 오기인 것 같음. 어쨌든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대오는 콤마(,)에 의해 나누어진다.

—Easton's Illustrated Dictionary

². Thomas

Twin, one of the twelve ([Mat 10:3](#)²; [Mark 3:18](#)). He was also called Didymus ([John 11:16](#)²; [John 20:24](#)²), which is the Greek equivalent of the Hebrew name. All we know regarding him is recorded in the fourth Gospel ([John 11:15, 16](#); [John 14:4, 5](#); [John 20:24, 25, 26-29](#)). From the circumstance that in the lists of the apostles he is always mentioned along with Matthew, who was the son of Alphaeus ([Mark 3:18](#)), and that these two are always followed by James, who was also the son of Alphaeus, it has been supposed that these three, Matthew, Thomas, and James, were brothers. —Easton's Illustrated Dictionary

그러니까 도마는 예수님과 쌍둥이가 아니라, 알패오의 아들로써 마태와 야고보의 형제일 것이라는 말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지난 2000 년 동안 그 진정성이 입증된 진리 중의 진리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김교수의 제한된 지식에 의해 무너질 그런 진리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믿음의 진리입니다.

II. 기독교의 진리는 역사 안에서 체험되는 진리라는 것에 대해.

다음에 기독교의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역사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불신자들이 믿거나 말거나, 인정하거나 안하거나, 역사안에서 체험되고 역사안에서 실현되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것은 하나님은 우주를 통치하시며 지배하시는 왕이라는 사실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시며 지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는 믿음 안에서 현재의 생활 속에서 체험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를 지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의 생활 속에서, 역사의 과정 속에서 경험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예언과 성취의 과정을 통해 역사의 과정 안에서 체험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독특한 점입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불교의 윤회사상은 역사성이 없습니다. 이슬람교의 내세사상은 조잡합니다. 공자는 사후의 세계를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눈뜨고 사는 세상일도 다 모르는데 하물려 눈 감고 난 후의 일을 어찌 알겠느냐?” 대답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너희가 천기는 임을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임질 못하느냐?” 하시면서 분명히 기독교 진리의 역사성에 대해 뜻을 밝으셨습니다.

1.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성은 개인의 경험속에서 체험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전능성에 대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 1:5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지금부터 약 30 년전에 저의어머님은 세브란스 병원과 원자력 병원에서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때는 대단한 통증이 와야 병원에 가는 때이기 때문에, 이미 암이 상당히 진전된 후였습니다. 이런 진단을

받은 후 우리 가족은 금식기도로 매달렸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직장에서, 학교에 다니는 사람은 학교 다니며, 3일간 금식기도를 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깨끗히 치료해 주셨고, 어머니는 지금도 83 세로 살아 계시며 지금도 여기서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 1:5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복음은 말로만 우리에게 임하지않았습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했습니다.**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오늘도 체험되고 있습니다. 복음은 믿는 자들 에게 역사 안에서 그 진정성이 체험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성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도 말씀의 역사성에 아주 못을 밝아 선언합니다. 만약 주의 이름으로 누가 무슨 말을 하였는데 실현되지 않으면 그 것은 가짜다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8:22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와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 안에서 체험됩니다. 진리의 역사성을 강조 합니다. 기독교의 말씀은 역사안에서 체험되는 믿음의 진리입니다.

2.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성은 예언과 성취로 역사안에서 실현된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역사성에 대해 강조를 많이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미리 예언되던 것들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로마서 1:2 을 보십시오.

로마서 1:2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오랜 역사 안에서 예언자들을 통해 미리 예언되어 오던 것들이 성취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은 예언이며, 신약은 그 성취입니다. 기독교는 구약 성경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받아 들이는 이유입니다.

기독교 진리의 역사성은 예언과 성취의 단계를 거칩니다.

신약이 구약의 성취라는 것을 공부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보십시오.

이사야 7 : 14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약에서 예언된 것은 신약에서 그대로 성취되었고, 마태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마태복음 1 : 22 이 모든 일의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마태복음 1 : 23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시기와 장소, 어린 아이로 부터 자라가지만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분이 라는 것까지 골고루 예언을 해 줍니다. 이사야 9:6 을 보십시오.

이사야 9 : 6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고! 인성을 말합니다.

그 아기는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신성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분이지만, 아기로 부터 태어나 자라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볼 것 같으면,

시편 16 : 10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이 시 16 편은 다윗의 시로써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 구절을 인용하여 바울은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했습니다.

사도행전 13 : 34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사도행전 13 : 35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의 시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3 : 36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좇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사도행전 13 : 37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사도행전 13 : 38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사도행전 13 : 39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구약의 예언은 이미 성취된 것도 있고, 장래에 성취될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예언 중에 어느 하나라도 떨어질 것이 없다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오순절의 성령 강림에 대한 예언을 공부해 보십시오.

요엘 2 : 28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요엘 2 : 29 그 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요엘 2 : 30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 예언은 신약의 오순절때 성취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 : 1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사도행전 2 : 2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사도행전 2 : 3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사도행전 2 : 4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베드로 사도의 이 설교는 요엘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선언한 것입니다.

이 예언이 성취되어 신약의 우리가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믿음의 기초 위에 서 있습니다. 그 분의 말씀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보다 든든한 기초는 없습니다.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영원한 집을 세우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글이나 인터넷 방송을 들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5분만 시간을 내셔서 저의 twitter 나 café 에나, Blog 에 가서서 소개의 글을 올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조그마한 노력으로 수많은 사람이 읽고 듣게 됩니다.

- Café 명 : 믿음의 향연

<http://cafe.naver.com/Christiansymposium.cafe> 이나

- Blog 명 : 행복의 샘터

<http://blog.daum.net/shk2812> 이나

- * twitter

1. <http://www.twtkr.com> 으로 가서서 로그인을 하세요.
2. 바울성서 아카데미(spba0708)에 접속하여 Follower 등록을 하세요
(twitter 안에서검색 box 에 spba0708 을 넣으신후 click 하면 접속됨).
3. 내 twitter 의 home 으로 가서 글을 쓰신 후 tweet 하세요.
4. 제가 twitter 에 올린 글(예, example)

성령님이 인격자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말씀으로 지배한다는 뜻이고, 우리는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알고 싶으면,
<http://www.stpaulbibleacademy.com/3FCFContents.html>

여섯째주를 공부하시길!

5. Retweet 를 하실 분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home 로 가서서, 글을 쓰는 Box 에 RT @ 를 type 하신 후 , space 한 후, Retweet 할 내용을 paste 하시면 됨.